

종교교육학연구 제43권. pp.25-49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12. 30.

가톨릭 사제 양성 과정에서의 영성계발*

최 준 규

가톨릭대학교

〈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사제 양성 과정 중에서 영성 계발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이론적 배경과 실재를 고찰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를 위해 주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회의 공식적인 문헌들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사제 양성은 교회의 사명 수행인 복음화를 위해 중요한 과업이다. 사제 양성은 엄정한 과정을 통해 사제직 지원자를 선택하여(선발), 유일하고 최상의 사제 양성 기관인 신학교에서(장소), 사제 양성 책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책임자)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교회 전통 안에서 사제 양성의 필수적인 영역은 인격 양성, 지적 양성, 영적 양성, 사목적 양성이다. 인격 양성은 사제 양성의 기초이고, 지적 양성은 사제 양성의 자양분이며, 사목적 양성은 사제 양성의 목적이고, 영적 양성은 사제 양성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영적 양성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깊은 일치를 이루는 것으로, 이를 위해 현행 신학교에서 활용하는 영적 양성 방법은 그리스도를 찾는 것과 복음삼덕(福音三德)을 체득하는 두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그리스도를 찾음’을 통한 영적 양성 방법에는 영성강화/영성지도,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말씀 묵상, 성체성사/고해성사/성무일도, 개인기도/침묵/피정/영신수련, 영성의 해/영성심화의 해 등이 있다. ‘복음삼덕을 체득하는 방법은 교회의 오랜 전통 안에서 정결, 청빈, 순명의 신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포함한다.

핵심주제어: 사제 양성, 영적 양성, 영성 계발, 교회 문헌, 신학교, 사제직 지원자 선발, 영성 지도, 정결, 청빈, 순명

* 본 연구는 2013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들어가는 말

사제는 현대 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다. 우선 신자들의 눈에는 사제들이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성장에 도달하지 못한 미숙한 존재로 반영되는 것이다. 그들이 신앙의 눈으로 사제를 볼 때에는 그 신적 권위를 인정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제를 인간으로 볼 때 과연 존경할만한 인격의 소유자들로 인정하는 데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어서, 사제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석연치 못함을 느끼는 수가 많다. 또 한 가지 그들의 불만은, 사제들이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난문제에 대하여 무감각하며, 시대적 요청에 대하여 백지상태이며, 사회 진보에 대하여 사제들이 적응하려는 태도가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데 있다.¹⁾

이 글은 놀랍게도 46년 전에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 양성의 책임을 지고 있던 어떤 주교의 ‘자아(自我)비판’이다. 그 주교는 신자들의 비판의 이유가 사제들에게 있으며, 이는 사제들이 서품 당시 지녔던 열정과 포부가 사라져갔기 때문이고, 사제들의 성직(聖職)에 지나친 애착과 성무(聖務) 이행에 대한 열정의 상실, 그리고 사제직(司祭職) 자체에 대한 권태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소위 ‘사제의 위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제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 어려움의 원인은 사제의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영성적 측면, 직무적 측면, 성과 독신의 측면, 경제적 측면, 그리고 무엇보다 사제적 정체성과 관련된 성소(聖召: 거룩한 부르심)의 측면에서 비롯한다. 사제의 어려움은 사제들이 가장 잘 알고, 또 그래서 “사제는 사제를 필요로 한다.”²⁾ 결국 사제의 문제는 사제들 자신이 풀어야 한다. ‘어머니인 교회’³⁾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별 사제의 어려움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제의 인간적 성숙과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사제는 교회가 자신의 본질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란 바로 복음화이다. 복음화⁴⁾란 단순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

1) 한공렬, 『공의회 정신에 의한 사제상(司祭像) - 교회의 자아(自我)비판』, 『司牧』 제1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7), 83-84쪽.

2) 에밀 브리에르, 『사제는 사제를 필요로 한다』, 전달수 역(왜관: 분도출판사, 2001), 4쪽.

3)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전통은 가톨릭 교회의 오랜 전통이다. 교회는 ‘어머니요 스승’이다. “교회는 어머니다운 정성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며 특히 화해의 성사를 통해 작용하는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푼다. 자상한 어머니와 같이, 교회는 전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성체라는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푼다.” “우주의 아버지도 한 분만 계시고, 우주의 말씀도 한 분만 계시며, 또한 어디서나 같은 성령도 한 분만 계십니다. 그리고 어머니이신 동정녀도 한 분만 계시는 데, 나는 그분을 교회라고 즐겨 부릅니다.”(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c. 150-215)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하느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없습니다.”(성 치프리아노, c. 200-258);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톨릭 교회 교리서』,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역,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2040항 참조.

4) 복음화라를 나타내는 라틴어 *evangelizatio*에 해당하는 우리말에는 복음선교, 복음선포, 전교, 선교, 복음화 등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게 세례를 주어 그리스도 신자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개별 인간과 사회의 가치와 규범, 관습과 태도, 문화와 제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화하고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지상의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⁵⁾ 사제는 자신에게 맡겨진 신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신앙의 신비를 전해주며, 믿음의 힘으로 더 행복하게 살도록 보살피는 책임자이다.⁶⁾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사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사제들이 없다면, 교회는 인간 역사 안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교회의 사명을 실천할 수 없을 것입니다.”⁷⁾

따라서 사제 양성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 교회는 하느님이 당신의 구원 사업을 위해 성소자(聖召者: 거룩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을 부르는 일에 협력하고, 양성의 모든 측면을 철저히 실시하여 성소자들이 자신의 성화(聖化)와 직무수행에 있어 열성을 다 하도록 돌보아 주어야 한다.⁸⁾

사제 양성의 목적은 사제직의 본질에서 비롯하며, 사제직의 본질은 사제의 신학적 정체성에서 비롯한다. 사제는 서품(敍品)을 통해 사제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⁹⁾ 즉, 사제는 그리스도의 성사(聖事, sacrament)¹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제 양성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사인 사제, 즉 그리스도를 세상에 효과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분을 철두철미 닮은 사제를 양성하는 것이다.¹¹⁾

교회가 사제 양성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가는 그동안 발표된 교회의 공식 문헌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아래의 문헌 목록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이후 발간되었고, 또 본 논문에서 활용된 문헌들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연도 순).

-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Optatam totius*, 1965년 10월 28일).

5) 복음화에 대한 논의는 다음 참조. 바오로 6세, 『현대의 복음 선교』(*Evangelii Nuntiandi*, 1975년 12월 8일)(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7), 제2부 17항 이하.

6) 요한 바오로 2세,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1992년 3월 25일)(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2), 6항.

7) 같은 문헌, 1항.

8) 같은 문헌, 1, 2항.

9) 같은 문헌, 15항.

10) 성사(聖事)는 라틴어 *sacramentum*의 번역으로서, ‘거룩한 것, 거룩한 사물’을 뜻하며, 교의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은총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감각적,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룩한 표지(*signum*)’로 정의된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의 성사에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병자성사 등 일곱 가지가 있다. 하지만 성사의 본래 의미에 따라 신학적으로는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모든 존재들이 모두 성사이다. 즉 그리스도는 성사의 원형이며, 교회가 역시 성사이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 혹은 성인들 역시 하느님의 성사라고 말할 수 있다. 성사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66항 이하 참조.

11)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한국 사제 양성 지침』(2001년 7월 10일),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3항.

- _____,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Presbyterorum Ordinis, 1965년 12월 7일).
- 요한 바오로 2세, 『교회법전』(라틴어-한국어 대역판, 1983년 1월 28일).
-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Tria iam lustra*, 1985년 3월 19일).
-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대신학교 교육 지침」(*La Congregazione*, 1987년 4월 25일).
-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교구 사제 사목 지침」(*Pastoral guide for diocesan priests in churches dependant on the Congregation for the Evangelisation of People*, 1989년 10월 1일).
- 요한 바오로 2세, 『현대의 사제 양성』(1992년 3월 25일).
- 교황청 성직자성, 「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Directorio per il ministero e la vita dei presbiteri*, 1994년 1월 31일).
-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신학생 선발과 양성에서 심리학 활용 지침」(Guidelines for the Use of Psychology in the Admission and Formation of Candidates for the Priesthood, 2008년 6월 29일).
-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사제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 지침」(Pastoral Guidelines for Fostering Vocation to Priestly Ministry, 2013년 3월 25일).

이 논문은 한국 가톨릭 사제 양성 과정에서 진행되는 영성 계발에 대하여 학문적 고찰을 하였다. 이 논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 장은 사제 양성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인 사제직 지원자 선발과 사제 양성의 유일한 장소인 신학교 그리고 주교를 비롯한 사제 양성의 책임자들에 대하여 논하였다. 둘째 장은 사제 양성의 주요 영역을 제시하면서, 이를 인성, 영성, 지성, 사목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장은 영성계발에 초점을 맞추어 그 기본 원리와 주요 내용을 원칙과 실제 사례를 곁들여 전개하였다.

II. 사제 양성의 주요 요소

1. 사제직 지원자의 선발

사제 양성은 사제직 지원자의 성소(聖召)를 식별하여 올바르게 선발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사제 성소의 식별은 신학교의 교육 및 양성 과정 안에서 엄정하고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수행할 일이지만,¹²⁾ 신학교에 문을 두드리는 지원자들을 신학생으로 받아들이는 입

12) 위 문헌, 22항.

학생 선발 과정에서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 사제 양성 지침』(2001)은 사제직 지망생들이 올바른 지향과 자유의지를 지녔는지, 또 인간적, 윤리적 자질을 지녔는지, 또 그들이 영적 자질과 지적 능력을 지녔는지 확인을 한 후에, 합당한 자격을 지녔다고 판단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선발하도록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다.¹³⁾

여기서 ‘인간적, 윤리적’ 자질이란 마음의 솔직성, 정서적 성숙성, 예의와 우정, 약속의 이행, 항구한 정의감, 자유와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 의지, 근면성, 협력 정신 등을 의미한다. ‘영적’ 자질이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극기정신, 부드러운 감수성, 정결의 수용 태도, 신앙 의식과 교회 정신, 사도다운 관심과 선교열을 말한다. ‘지적’ 능력이란 바르고 건전한 판단력, 교회 학문의 습득 능력, 사제직과 그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공동체 삶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생활을 할 능력을 의미한다.¹⁴⁾

교회 문헌들은 사제직을 수행할 충분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을 ‘중대한 오류’라고 강조한다.¹⁵⁾ 비록 사제들의 수가 너무 부족하여 수적 증가가 시급하더라도,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선발하거나 선발 요건을 낮추거나 지적·영적 양성을 적당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록 사제들의 수가 부족해서 마음 아픈 경우라 할지라도 언제나 용감해야 한다.”¹⁶⁾

교회가 사제직 후보자를 엄격하게 선발하는 것은 단지 소수의 엘리트를 양성하겠다는 ‘선별’ 혹은 ‘성별(聖別)’의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사제들이 장차 책임질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엄격한 선발에 대한 ‘사목적’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제직 지원자의 인간적 품성과 영적·지적 능력 그리고 지원 동기에 대한 식별은 선발 과정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2. 신학교, 사제 양성의 장소

신학교는 현행 교회법 상 사제 양성을 위한 ‘유일한’ 장소이다. 현행 교회법으로 사제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장소는 교회 교도권이 승인한 정규 신학교 외에 다른 곳에서는 불가하다. 신학교(*seminarium*)는 성소의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소신학교(*seminarium*

13) 신학생 성소식별과 선발에 관한 교회 문헌, 특히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의 문헌들에 관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 이춘택, 『사제 양성 안에서 드러나는 성소식별의 필요성』, 『누리와 말씀』 제32호(인천: 인천가톨릭대학교, 2012).

14) 『한국 사제 양성 지침』, 12-15항. 박일, 『대신학교에서의 사제 양성의 쇄신』, 『司牧研究』, 10(서울: 가톨릭사목연구소, 2002), 53-55쪽 참조.

15) 한국천주교교회 200주년 사목회의위원회, 『성직자』, 『사목 회의 의안 I』, (서울: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사목회의위원회, 1984), 25항, 27항; 『한국 사제 양성 지침』, 12항. 이에 대하여 박일, 같은 글, 각주 12 참조.

16)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6항.

minus)와 본격적인 사제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신학교(*seminarium majus*)로 구분된다. 신학교가 설립된 목적은 사제직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양성하고 교육하여, 교회의 사목자로 만드는 데 있다.¹⁷⁾

또한 신학교는 사제 양성을 위해 ‘최상의’ 장소이다. 이는 신학교가 사제 양성을 위해 단지 물리적으로 훌륭한 시설과 제도라는 뜻이 아니라, 장상들과 지원자들이 함께 생활하며 사제직의 신비를 체득해 가는 양성 공동체라는 뜻이다.¹⁸⁾ ‘공동체’로서의 신학교라는 개념은¹⁹⁾ 단지 신학생들의 공동생활과 협력을 뜻하는 일반적 의미를 넘어서 교회적 의미를 담고 있다. 『현대의 사제 양성』은 “신학교는 자체 내에서 교회의 삶을 최초로 경험하는 곳입니다.”²⁰⁾ 라고 말하면서, 사제직 지원자들이 교회 공동체인 신학교에서 교회가 간직한 신앙의 신비와 교회적 삶에 관한 모든 측면을 최초로, 그러나 온전히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²¹⁾

신학교가 사제 양성을 위하여 탁월한 장소인 이유를 좀 더 상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학교는 교회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성소 지원자들은 매일 말씀과 미사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형제적 사랑을 향하여 지속적인 회심을 하게 되며, 주교와 그를 대리하는 사람들이 이루는 교회의 친교에 동참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둘째, 신학교는 사제 지망자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은총의 장소이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은 서로 형제적 친교를 나누고, 성체와 성혈을 통해서 사랑의 성령을 받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형제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회심하여 영적 성장을 이뤄가는 곳이다. 셋째, 신학교는 공동체적 덕을 키우는 장소이다. 공동체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신학교는 사제직 지원자들이 자신의 나약함과 죄를 회개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형제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키우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신학교는 서로에게 증거의 삶을 보여주는 장소이다. 신학교의 생활은 인격과 영성에서 출중하고 봉사심과 희생심이 뛰어난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상호 참다운 사랑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아주 가까이서 보고 배우는 장소이다.²²⁾

17) 요한 바오로 2세, 『교회법전』(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제234조 이하;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4항; 『사제 양성 기본 지침』, 20항; 『한국 사제 양성 지침』, 16항.

18) 『현대의 사제 양성』, 60항.

19) 공동체로서의 신학교라는 개념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개념이었지만, 후속 문헌들을 통해 이 개념이 자주 사용되었고, 결국 이 용어는 신학교의 고유한 본성을 표현하는 것으로까지 발전했다. 이에 관하여 다음 참조. 김영교, 『대신학교에서의 영성교육』, 『복음과 문화』 제9호(수원: 수원가톨릭대학교, 1998), 96-98쪽; 브루노 마초카토, 『양성 공동체로서 대신학교』, 한영만 옮김, 『가톨릭 신학과 사상』, 제42호(서울: 신학과사상학회, 2002), 227쪽.

20) 『현대의 사제 양성』, 60항.

21) 브루노 마초카토, 같은 글, 228쪽.

22) 최준규, 『한국 가톨릭 사제 양성: 원리와 실제』, 『가톨릭 신학과 사상』, 제53호(서울: 신학과사상학회 2005), 85-86쪽.

3. 사제 양성의 책임자

교회 문헌들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사제 양성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지닌다고 강조한다.²³⁾ 사제 양성에 대해 직간접으로 책임을 지닌 교회의 지체들은 주교, 가정, 본당, 단체, 학교, 신학교의 양성 책임자들(학장, 영적 지도자, 신학 교수), 그리고 사제직 지원자 자신이다.

먼저, 주교는 사제 양성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책임자이다.²⁴⁾ 특히, 교구를 책임진 교구장 주교는 교구의 사제단을 포함한 모든 교구민들이 성소자 발굴과 양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성소 계발과 육성에 헌신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교구 안에 성소 관련 전담 사제를 임명하여 성소 계발과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며, 성소 계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도하고 후원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교구 사제들이 청소년들에게 사제직의 가치와 의미를 인식시키고 성소의 길로 인도하도록 강조해야 한다. 또한 사제 양성에 직접적으로 헌신할 능력 있고 모범적인 사제들을 신학교에서 일하도록 임명해야 한다.²⁵⁾

가정은 사제 양성을 위한 ‘못자리’이다. 법씨가 빨리 튼튼하게 뿌리내리도록 만드는 못자리처럼, 사제 성소의 작은 그리스도인 가정이란 모판에서 발아한다. 그리스도 신앙으로 충만한 가정은 ‘최초의 신학교’가 되고,²⁶⁾ 계속적인 성소의 요람이 된다.²⁷⁾ 청소년은 가정 안에서 일찍이 사랑과 봉사와 희생의 자세를 체험하고 배운다.

본당 공동체 또한 사제 성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본당은 젊은이들에게 교회 신비의 여러 측면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소이다.²⁸⁾ 주일학교와 복사단, 전례단, 성가대, 봉사단 같은 본당 내 활동단체는 청소년들이 성소에 대해 쉽게 관심을 가질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당 내 성직자, 수도자, 교리교사는 청소년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 올바른 동기를 갖도록, 또 이를 올바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²⁹⁾ 또한 본당 공동체는 본당에 소속한 신학생들을 기도로서 후원해 주고, 방학 기간 동안 성심껏 맞이해 주며, 그들이 더욱 사제다운 면모를 갖추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자신의 성소를 충분히 시험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³⁰⁾

23)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2항; 『현대의 사제 양성』, 60항;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사제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 지침』(2013년 3월 25일),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 13항.

24) 제2차 바티칸공의회,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Christus Dominus, 1965년 10월 28일), 15항; 『현대의 사제 양성』, 65항.

25)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2항; 『현대의 사제 양성』, 39-41항; 『한국 사제 양성 지침』, 6항.

26)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2항

27) 『한국 사제 양성 지침』, 9항.

28) 『현대의 사제 양성』, 68항.

29) 『한국 사제 양성 지침』, 7항.

30) 『현대의 사제 양성』, 41항.

본당의 경계를 넘어 교구 차원의 여러 단체와 활동들 역시 사제 성소를 계발하고 사제 양성을 하는 데 이바지 한다. 교구 내에는 성서모임, 레지오, 포폴라레, 성령쇄신운동, 대학생회, 노동청년모임,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청소년 단체들이 있으며, 이러한 단체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했던 젊은이들이 사제 성소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

가톨릭 학교 역시 성소 계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가톨릭 학교는 교내에 자유와 사랑의 복음 정신으로 충만한 분위기를 만들어 교회의 복음화와 전인교육에 헌신하는 복음의 공동체이다.³¹⁾ 가톨릭 학교는 가톨릭 정체성을 담은 교과과정과 교과외과정, 특별활동, 전례 및 선교 활동을 통해, 그리고 교사의 인격적·신앙적 모범을 통해 청소년들을 자연스럽게 성소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 줄 수 있다.

신학교는 사제 양성의 유일하고 최상의 장소로서, 사제 양성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신학교의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학장 등 사제 양성자들의 헌신에 달려있다. 『현대의 사제 양성』은 사제 양성자를 선발할 때 고려해야 할 자격 조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 성숙되어 있고, 사목 경험이 있으며, 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소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의 직무와 관련 있는 인문 과학(특히 심리학) 분야를 진지하게 준비하고, 그물을 지어 함께 일하는 법을 잘 아는, 그런 일련의 자격들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해야 하는 것임이다.³²⁾

신학교의 학장(rector)은 신학교의 최종 책임자로서 교구장 주교를 대신하여 사제 양성의 책무에 헌신한다. 신학교의 영성지도 사제는 영성부장(*Moderator spiritualis*)과 영성 지도자(*Director spiritualis*)와 고해 사제(*Confessarius*)로 구성된다. 영성부장은 전례, 기도, 신심 생활, 피정, 영신 수련 계획을 세워 수행할 책임을 지며, 영성 지도자는 신학생들을 정기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만나 신학생들의 영적 여정이나 성소 식별 과정을 인도하며 돕는다. 고해 사제는 정기적으로 신학생들의 고백을 들음으로써 신학생의 영성 계발을 돕는다. 한편 신학교에서 신학과 철학, 기타 교양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신학생의 지적 양성에 대해 책임진 자로서, 신앙과 교회에 대해 충성심이 높은 사제와 수도자, 신자 가운데 인간적 성숙함과 그리스도교적 윤리성을 갖추어야 한다.³³⁾

끝으로, 사제 양성에서 주인공은 바로 사제직 지원자 자신이다. 지원자야말로 사제 양성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주체이다. 사제 양성이란 궁극적으로 지원자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제직 지원자는 사제직에 적합한 자격을 갖

31) 『그리스도인의 교육에 관한 선언』, 8항.

32) 『현대의 사제 양성』, 66항.

33) 같은 책, 제883조 6항 7항; 『한국 사제 양성 지침』, 23항.

추도록 노력하고,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독신생활과 영성생활 그리고 사목생활을 잘 수행하도록 원숙함을 갖추도록 전력 정진해야 한다.³⁴⁾ 아울러 교양과 철학, 신학의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고 또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³⁵⁾ 신학교의 공동생활에 충실함으로써 공동체 삶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³⁶⁾

Ⅲ. 사제 양성의 주요 영역

사제 양성은 인격 양성, 영적 양성, 지적 양성, 그리고 사목적 양성 등 4영역으로 구분된다. 『교회법전』(1983)에는 ‘인성교육’을 제외한 영적 양성(*formatio spiritualis*, 제244-247조), 학문적 양성(*formatio, doctrinalis*, 제248-252조), 사목적 양성(*formatio pastoralis*, 제255-258조) 등 세 영역만이 존재하였다. 이 세 영역은 1985년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 1987년 「대신학교 교육 지침」에서도 계속 유지되다가, 1992년에 와서야 「현대의 사제 양성」이 ‘인간 교육’을 포함함으로써, 그 후 사제 양성의 영역이 현재의 네 영역으로 확정되었다.³⁷⁾

1. 인격 양성

사제가 하는 일은 항상 그리고 결국 한 인격과 관련된 일이며, 훌륭한 인격은 사제직에 필수 사항이기에, 사제직 지원자들의 인격 양성은 매우 중요하다. 사제직 지원자를 위한 인격 양성은 먼저 윤리덕(倫理德)의 계발을 목표로 한다. 윤리덕(*virtus moralis*)이란 인간이 하느님의 뜻에 맞게 윤리적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을 말한다.³⁸⁾ 「사

34) 『한국 사제 양성 지침』, 14항.

35) 같은 문헌, 13항.

36) 같은 문헌, 15항 참조.

37) 우리말로 번역된 여러 교회 문헌에서 human formation, spiritual formation, intellectual formation, pastoral formation을 인간 교육, 영적 교육, 지적 교육, 사목적 교육으로 표기했으나, 원문에서 사용한 단어가 ‘education’이 아니라 ‘formation’이므로 ‘양성(養成)’이라는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교육과 양성은 다르다. 교육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해진 교육내용을 학습하게 하는 데 치중하는 반면에, 양성은 일정한 교육과정 보다는 바람직한 가치체계와 신념, 태도의 습득을 강조한다. 이런 이유로 여기서는 신학교 교육의 영역을 인격 양성, 영적 양성, 지적 양성, 사목적 양성으로 표현했다. 사제 양성의 네 영역에 대해 논의는 연구자의 다음 논문을 참조. 줄고, 「한국 가톨릭 사제 양성: 원리와 실제」, 75-137쪽; 줄고, 「사제 평생교육의 의미와 발전 방향」, 『가톨릭 신학과 사상』, 제57호(서울: 신학사상학회, 2006), 191-193쪽 참조.

38) 대신덕(對信德)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케 하는 능력임에 비하여 윤리덕(倫理德)은 인간이 윤리생활을 올바르게 영위하며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 힘이다. 윤리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으로 지(智), 의(義), 용(勇), 절(節)인 사주

제 양성에 관한 교령』(1965) 11항은 사제의 윤리덕을 “마음의 성실성, 정서적 성숙성, 변함없는 정의감, 자유와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실행하려는 의지, 인내와 자기 통제력, 약속의 이행과 행동의 정중함, 예의와 단정함” 등으로 열거하였다.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1985) 51항은 “형제적 봉사 정신, 근면 정신, 협동 정신” 등을 신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인격 양성의 덕목으로 제시하였다. 『현대의 사제 양성』(1992) 43항과 44항은 품성, 친교, 사랑과 정서, 자유, 양심 등으로 구분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2. 영적 양성

사제 양성에서의 인격 양성은 영적 양성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영적 양성을 통해 완성된다.³⁹⁾ 영적 양성의 목적은, 미래의 사제들이 착한 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친교를 이루게 해 주며, 성부께 자녀다운 자세를 갖추고, 교회에 신뢰에 가득 찬 사랑을 기울이면서 자신의 삶을 성령께 전적으로 의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제 양성을 하는데 있어 영적 양성이 빠진다면 기초 없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1965)은 사제직 지원자의 영적 자질에 대해 다음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1) 삼위일체와의 긴밀한 친교와 일치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 (2)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묵상하고 미사와 성무일도⁴⁰⁾에 적극 참여하면서, 주교와 자신이 파견될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려는 태도, (3) 무익한 것을 기꺼이 끊어 버리면서 독신생활을 위해 몸과 마음을 철저히 다스릴 수 있는 태도, 그리고 (4) 동정 마리아께 대한 공경심 등 네 가지이다.⁴¹⁾

『현대의 사제 양성』(1992)은 위 교령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영적 양성을 위해 신학생들은 (1) 예수 그리스도께 밀접하게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의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고, ‘작은 이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해야 한다. (2)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lectio divina*), 그리고 참된 기도를 해야 한다. (3) 교회의 모든 성사와 성무일도, 그리고 미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4) 하느님 백성, 특히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또 스스로 주님의 봉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제다운 순명과 가난한 생활과 독신의 정결을 배워야 한다.⁴²⁾

덕(四樞德)을 말하기도 하고, 신앙애(信望愛)의 복음삼덕(福音三德)이나 겸손, 관용, 인내 등을 덕목으로 들기도 한다. 『가톨릭 대사전』(<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 ‘덕’, ‘윤리덕’ 참조.

39) 『현대의 사제 양성』, 45항.

40) 성무일도(聖務日禱)는 시간전례라고도 한다. 성무일도에 관해서는 이 글의 각주 66과 이에 해당하는 본문 내용을 참조할 것.

41)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8-11항.

42) 『현대의 사제 양성』, 46-50항.

3. 지적 양성

지적 양성은 인격 양성이나 영적 양성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으며, 다른 양성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사제직 지원자들에게 엄격한 지적 양성이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현대사회에서 신앙의 진리를 분명하게 옹호할 수 있도록 하며(1베드로 3, 15-16 참조),⁴³⁾ 또 복음을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현대의 문제에 대해 신앙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다. 단지 주의할 것은 지적 양성이 신학생 개인의 영적인 여정과 연관되어야 하기에, 관념적 지식을 극복하고 진리와 신앙의 신비를 발견하고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⁴⁴⁾

『교회법전』(1983)은 신학교 교육의 지적 양성에 대한 기본 원칙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먼저, (1) 복음 선포에 유용한 신학과 기타 학문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2) 모국어, 라틴어, 그리고 유용한 기타 언어를 숙달시켜야 하며, (3) 철학과 신학의 양성 시기 구분하고(철학 2년, 신학 4년을 순차적 혹은 동시에 함), (4) 철저한 철학 수업을 하여 신학 수업을 위한 기본 자질을 함양하고, (5) 신학 수업은 교도권의 감독 아래 수행되도록 한다.⁴⁵⁾

신학 교육은 지적 양성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신학 교육의 목적은 신학생들이 신앙의 진리와 교회의 진리를 보다 교회적인 관점에서 통일된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데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신학 교수들은 신학생들이 임의적으로 취사선택하거나 부분적인 진리가 아닌 ‘모든’ 진리를 알도록 교육과정을 균형 있게 제공해주고,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⁴⁶⁾

또한 『한국 사제 양성 지침』은 신학 교수들이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첫째, 교수들은 신학생들이 성숙한 사목자로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임을 기억하여 영적, 사목적, 공동체적 전망을 염두에 두고, 이런 전망과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교과 수업을 해야 한다. 둘째, 교수들은 학자들의 견해와 교회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 셋째, 각 과목의 고유하고 중요한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 것이며, 철저한 강의계획과 참고문헌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넷째, 신학생들이 한국의 문화유산을 이해하도록 동양 철학, 동양 종교, 그리고 한국인의 심성을 알고, 특히 한국인의 건전한 윤리관을 존중하고 이를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⁴⁷⁾

43) 1베드로 3,15-16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선한 처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중상하는 바로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44)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16항; 『현대의 사제 양성』, 51항.

45) 『교회법전』, 제234, 제248-제252조.

46) 한국 신학교의 역사적 고찰과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 노용필, 『예수성심신학교의 사제 양성 교육』, 『인간연구』, 제5호(서울: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3), 155-181쪽; 노용필, 『성신대학의 사제 양성 교육』, 『인간연구』, 제7호(서울: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4), 128-154쪽.

47) 『한국 사제 양성 지침』, 34-35항.

4. 사목적 양성

사제직 지원자들에게 실시하는 모든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는 그들이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닮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사제직 지망자들을 위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두 사목적 성격을 띠고 있다.⁴⁸⁾ 즉 인격 양성, 영적 양성, 지적 양성은 궁극적으로 사목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사목적 양성은 사제직 지망자에게 사목적인 기법을 가르치기 보다는, 참된 목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깊이 이해시키고 사목자의 감각을 갖추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신앙과 신학의 요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래의 사목자가 될 신학생은 사목자에게 어울리는 가치와 태도를 지니고 그것을 사랑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 사랑의 실천이 증가될수록 사제와 주교, 사제와 사제, 또 사제와 평신도의 친교는 심화되며, 공동체적 일치 역시 강화된다.⁴⁹⁾

Ⅳ. 사제 양성 과정에서의 영성 계발

사제 양성의 여러 영역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영역은 영성 계발이며, 이는 교회적인 표현으로 영적 양성이다. 말할 나위 없이, 사제는 자신이 먼저 영성적인 존재가 되어 영적 활동을 하는 존재이다. 만일 어떤 사제가 자신의 영성을 충분히 갖고 닦지 않아 빈약한 영적 상태를 지녔음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제 직무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오이다. 성 보나벤투라⁵⁰⁾는 영적 양성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 누구도 깊이 새기지 않고 공부만 한다든가, 열의는 없으면서 묵상만 한다든가, 감탄이 없는 탐구만 한다든가, 기쁨을 느끼지 못한 채 계명만 지킨다든가, 신심은 없으면서 활동만 한다든가, 사랑을 갖추지 않은 채 지식만 갖추다든가, 겸손을 갖추지 못한 채 지성만 갖추다든가,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은 채 공부만 한다든가, 하느님께서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⁵¹⁾

48) 같은 문헌, 36항.

49) 같은 문헌, 38항.

50) 성 보나벤투라(Bonaventura, 1217-1274)는 중세의 철학자이며 신학자, 추기경. 1238년 작은 형제회의 수도자가 되었고, 1248-1255에 파리대학교에서 신학과 성서를 가르쳤다. 작은 형제회 총장을 지냈고, 후에 영성에 관한 저서와 성서주석에 관한 저술로 유명했다.

51) 『현대의 사제 양성』, 53항에서 재인용.

영적 양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히 사제의 정체성과 사제 직무에 더욱 특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제의 정체성은 세 가지 측면을 지니는데, 사제는 그리스도가 선택한 ‘위로부터 불림 받은 존재’(성소, *vocatio*)로서 서품을 통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축성된 존재(축성, *consecratio*)이며, 조건 없이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는 존재(사명, *missio*)이다.⁵²⁾ 사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기도와 전례에 충실하고, 말씀을 성실히 묵상하고 선포하며, 미사와 다른 성사를 집전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사제는 자신의 정체성과 직무가 일치를 이루고 삶의 활력을 지니며⁵³⁾ 자신의 영성을 계속해서 불태우도록(2티모 1,6 참조)⁵⁴⁾ 계발해야 한다.⁵⁵⁾

사제 양성 과정에서 필요한 영성 계발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는 이미 본문의 ‘영적 양성’ 부분에서 밝힌 바 있지만, 여기서는 이를 크게 ‘그리스도를 찾음’과 ‘복음삼덕’이라는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보다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⁵⁶⁾ 그리고 두 영역에 해당되는 영적 양성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과 더불어 국내 신학교의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1. 그리스도를 찾음

사제 영성을 이루는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친교이다. 사제 양성에 관련된 문헌들은 사제 영성의 본질을 그리스도와의 관계, 즉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 ‘우정적 친교’ 나아가 ‘사랑에 빠진 생활’이라고 등으로 표현한다.⁵⁷⁾ 따라서 신학생들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삶으로 잘 구현하도록 체계적인 양성을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 신학교⁵⁸⁾에서 대체적으로 영적 양성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들은 영성강화, 영성지도, 거룩한 독서, 말씀 묵상, 성체성사, 고해성사, 성무일도, 개인기도, 침묵, 피정, 영신수련, 영성의 해, 영성심화의 해 등이다. 이 방법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2) 사제의 정체성과 직무에 관하여, 유희석, 『오늘날 사제의 정체성』, 『가톨릭신학』 제14호(대구: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09) 참조.

53) 『현대의 사제 양성』, 45항.

54) 2티모 1,6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55) 『사제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 지침』, 7항.

56) 이 영역 구분은 박일, 앞의 글 참조.

57)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독신 생활 양성 지침』(1974년), 『사제양성-신학생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31항; 이학율, 『신학생들의 영성생활과 기도양성-교회문헌을 중심으로』, 『신앙과 삶』, 제9호(부산: 부산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4), 151-152쪽.

58) 현재 국내 가톨릭 교회의 신학교는 일곱 군데에 있다. 서울, 광주, 대구, 인천, 수원, 대전, 부산에 교구 신학교가 있으며, 이 중 서울, 대구, 인천, 부산 신학교는 종합대학이고, 광주, 수원, 대전 신학교는 신학과 철학 과정만을 운영하는 ‘순수’ 신학교(단과대학)이다. 학제는 모두 7년제이며,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면 대개 9~10년 정도의 사제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1) 영성강화와 영성지도

국내 신학교에서 영성 계발을 위해 영적 양성을 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영성강화(講話)와 영성지도라고 할 수 있다. 영성강화는 일주일에 한 번, 주로 주말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신학교 학장과 영성지도자들에 의해 진행되며, 학년에 따라 내용과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은 학년별 영성강화의 주요 주제들이다.

1학년: 영성 생활과 신학교 생활의 시작, 성소 식별

2학년: 영성 생활과 기도

3학년: 영성 생활과 정화(淨化)

4학년: 영성 생활과 사제직

5학년: 영성 생활과 관계성, 사목

7학년: 영성 생활과 리더십

위의 주제들은 신학교에 따라, 시대에 따라, 또 학장이나 양성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⁵⁹⁾

또한 신학생들은 적어도 주 1-2회 자신의 영적 문제와 성장에 대해 영성지도를 받고 있다. 신학생의 영성지도에 관한 내용은 교회의 공식문헌과 신학교의 내규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⁶⁰⁾ 신학생이 영성지도를 받을 때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개방하면서 영성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속죄 생활과 수덕 생활을 위해 힘쓴다. 현재 영성지도는 신학교 내 상주하는 영성지도 신부와 외래 신부들을 위촉하여 고정된 영성 지도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2) 거룩한 독서와 말씀 묵상

사제 영성을 살기 위해 신학생들이 수행하는 기초적인 수련 항목은 성서묵상이다. 가톨릭 교회 안에 전통적인 기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거룩한 독서(렉시오 디비나 *lectio divina*)라고 불리는 성서 묵상은 가장 보편적인 가톨릭 기도 방식이다. 렉시오 디비나는 본래 수도 전통에서 수도승이 몸과 마음, 영혼을 다해 읽던 성서 독법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인간 존재에 확산하여 내면화 혹은 인격화하는 과정이다.⁶¹⁾ 거룩한 독서의 구성은 ‘준비’(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다. 자세, 호흡, 마음,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 성령께 도움을 청함), ‘독서’(성서 말씀을 작은 소리로 천천히 읽기, 듣기, 침묵하기), ‘묵상, 관상’(마음

59) 연도별 영성 강화의 내용에 대하여, 박일, 같은 글, 84-85쪽 참조.

60) 서울대신학교, 『생활내규』(서울: 가톨릭대학교), 1997, 21항; 『한국 사제 양성 지침』, 27항.

61) 허성준, 『수도승 전통 안에서의 Lectio Divina』,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7-9쪽.

에 닿는 구절에 머무름, 암송), ‘마무리’(감사기도, 말씀 기억하기)로 이루어 있다. 거룩한 독서는 침묵 가운데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묵상(혹은 관상)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더욱 잘 알고 사랑하게 되며, 그분과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만드는 기도이다.⁶²⁾ 거룩한 독서를 하는 것 이외에도, 신학생들은 성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 유형의 ‘말씀’ 모임에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성서40주간’, ‘성서100주간’, ‘여정’ ‘성서못자리’ 같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그것이다.

3) 성체성사, 고해성사, 성무일도

매일 성체성사(聖體聖事, Eucharist)⁶³⁾에 참여하는 것은 사제 양성 과정에 있는 신학생들에서 필수적인 요구 사항이다. 신학교에서 매일 미사가 거행되며, 신학생은 매일 미사에 참여한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모든 구성원을 일치시키고 파스카의 희생으로 구원된 세상을 향하게 하며, 모든 개인과 공동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마 12,1)로 만든다.⁶⁴⁾ 성체조배(聖體朝拜, Eucharistic adoration)⁶⁵⁾ 역시 성체에 대한 신심에서 비롯한다. 신학생은 아침 미사 전후, 정오 양심성찰 전후, 저녁 기도 전후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내어 성당 내 성체 앞에서 침묵 속에서 성체조배를 하도록 권고 받는다.

고해성사(告解聖事, Confession)는 미래의 사제들이 수덕에 대한 의식을 키우고 희생과 극기의 정신을 지니며,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마음을 정화하고 정의로운 양심을 간직하며,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를 체험하게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정신을 실천하는 삶이란 일상적인 회심을 전제하므로, 신학생은 죄를 성찰하고 뉘우치는 정신을 키워야 하고, 자주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성무일도(聖務日禱)는 라틴어의 ‘*liturgia horarum*’을 번역한 것으로 영어로는 ‘liturgy of the hours’(시간전례)라고 한다. 성무일도는 하루를 여러 순간으로 나누어 정해진 시간에 바치는 기도로서,⁶⁶⁾ 모든 성직자에게는 의무이며, 대부분의 수도자 역시 이 기도를 바

62) 김기화, 『서울대교구 대신학교 신학원 영적 양성』, 『司牧研究』, 제10호(서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2002)226-227쪽.

63) 성체성사는 가톨릭 교회의 일곱 성사인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중 하나로서 보통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기념하는 미사성제와 혼용하여 사용한다. 참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28-1332항.

64) 『현대의 사제 양성』, 48항; 『한국 사제 양성 지침』, 27항.

65) 성체조배란 성체 앞에 특별한 존경을 바치는 신심행위이다. 교회는 신자들이 틈틈이 성당의 성체(聖體) 앞에 무릎을 꿇고 성체 안에 현존하는 그리스도께 흠숭과 사랑을 표현하고 성체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도록 권장한다. 출처: ‘성체조배’, 『가톨릭 대사전』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

66) 성무일도의 시간 전례는 아침기도(동 톨 무렵), 세 개의 낮기도(3시경, 6시경, 9시경), 저녁기도(밤이 시작될 때, 혹은 일과 후), 끝기도(잠자기 전) 같은 시간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초대송과 독서기

친다. 시간 전례란 용어는 이 기도가 교회의 공적 예배의 하나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또 하루의 모든 시간을 성화하도록 구성된 시간 기도라는 특징을 드러낸다. 신학교의 성무일도는 전례적 기도의 풍요로움을 신학생들이 체험하도록 만든다. 정해진 시간에 바치는 성무일도는 신학생이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매일 일상적인 시간에 어떤 영성적 리듬을 부여하게 한다. 신학생은 성무일도의 시간경(時間經)을 바침으로써 말씀에 맛들이게 되고, 교회의 전 공동체를 위하여 세계의 모든 성직자, 수도자, 또 열성적인 신자들과 함께 교회의 공적인 기도를 하게 된다.

4) 개인기도, 침묵, 피정, 영신수련

개별 신학생의 개인기도는 반드시 양성되어야 할 과정이다.⁶⁷⁾ 개인기도 수행은 ‘꾸준히’ ‘인내롭게’ ‘끊임없이’ ‘부단히’ 말씀과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을 말한다.⁶⁸⁾ 침묵은 개인기도 수행에서 제일 먼저 강조된다. 침묵은 말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기도 자체’이다. 침묵은 자신을 만나고 또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지녀야 하는 내적 기도이다. 침묵은 초자연적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이고, 인간적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대화의 수단이며, 신적 체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침묵이라는 기도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고, 하느님과 대화하는 마음이며, 하느님의 뜻을 기리는 마음이라고 하였다.⁶⁹⁾ 가톨릭의 모든 수도회와 신학교는 전통적으로 매일 저녁 기도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식사 전까지 대(大)침묵을 준수하고 있다.

신학생들은 피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피정(避靜, retreat)은 말 그대로 일상적 환경과 업무와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서 일정 기간 동안 한적한 장소에서 보내며 말씀 묵상과 개인 기도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있는 피정은 개학 피정(3박 4일), 월 피정(1박 2일), 서품 피정(일주일 정도)과 수직(受職) 피정(3일 정도)이 있고, 입학 전 신학생 피정(3박 4일), 4학년을 위한 이나시오 피정(7박 8일), 부제품(副祭品) 이나시오 영신수련(한 달)이 있다. 이 외에 신학생은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와 함께 다른 피정을 체험한다. 이런 피정은 사제 양성 과정에서 회심과 새로운 결심을 거듭하게 만들어 준다.

도가 포함된다. 시간전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시간전례』, 『한국 가톨릭 대사전』 제8권(왜관: 분도출판사, 2006), 5292쪽 이하.

67) “신학생들에게는 반드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중략] 신학교에서는 적어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확실하게 명문화시킨 다음, 신학생들이 개인적인 기도를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기도 준비를 절대로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신학교 영성 교육 중 매우 절박한 문제들에 관한 회람』, 『사제양성-신학생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381-382쪽.

68) 이학울, 앞의 글, 161쪽 이하.

69) 김기화, 앞의 글, 224-225쪽.

5) 영성의 해, 영성심화의 해

한국의 모든 신학교에서는 신학과 1학년생 혹은 2학년생을 포함하여 ‘영성의 해’를 실시하고 있다. 영성의 해는 영적 수련기(tirocinium spiritualis)라고도 하는 데, 본래 영적 수련 기관 신학교 생활을 어느 정도 한 학생이 면학에 너무 치중하고 세상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신학교 생활을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고, 자신의 성소가 온전히 성숙되는 영성 생활에 온전히 몰입하도록 필요한 평화와 조용함을 확보하여 영적 훈련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고, 자신의 삶의 문제들과 성소 문제를 심사숙고한 뒤에 자유 의지로써 받아들일도록 배려하는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영성의 해의 목표는 영적 양성(formatio spiritualis)을 심화하고 성소의 선택을 성숙시키는 것이다.⁷⁰⁾ 영성의 해 동안 양성자는 신학생이 인격적 측면과 지적 측면에서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소에 대한 식별을 하도록 돕는다. 영성의 해 동안 신학생은 신학교 밖으로 외출을 할 수 없고, 공동생활에 충실하면서 학기 초 피정, 월 피정, 영성지도 및 영성상담, 영성강화, 성서40주간, 개인묵상, 의식성찰, 영적 일기, 대침묵을 철저히 실천한다.⁷¹⁾

최근에는 신학교 마다 대학원 1학년 기간을 ‘영성심화의 해’로 정하고, 성소에 대한 확신과 분별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다른 학년과는 달리, 그날의 성경말씀으로 한 시간씩 묵상기도를 하고,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주 1회 영성지도 신부와 만나 지도를 받는다. 이렇게 기도 생활에 충실한 신학생들은 영적 진보와 인격적 성장을 체험하게 된다.⁷²⁾

2. 복음삼덕(福音三德)

복음삼덕은 청빈, 정결, 순명을 의미하는 복음적 권고를 말한다. 사제는 복음삼덕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맡겨진 사제 직무를 더욱 열성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정결

사제직은 독신의 정결을 전제로 한다. 즉, 교회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뿐 아니라 정결을 지키기를 약속한 남자들에게만 사제직을 수여한다.⁷³⁾ 동정을 지키거나 독신 생활을 하는 정결은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좀 더 하느님께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70)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12항 참조.

71) 박일, 앞의 글, 75-76쪽.

72) 곽진상, 「신학교의 사제양성 시스템」, 『경향잡지』 (April, 2013), 22-24쪽.

73)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10항, 「사제 직무 교령」, 16항, 『교회법전』, 제247조 1항.

이다. 정결은 교회에게 주신 하느님의 선물이자 하느님 나라의 표지이고, 하느님과 사람들을 향한 사제의 오롯한 사랑을 나타내는 표지이다(1코린토 7,32-34 참조).⁷⁴⁾ 독신제가 비록 사제직과 그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제 영성에 적합한 삶의 방식이다. 즉, 독신을 통해서 사제들은 하느님과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희생하기에 더욱 편하며,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영적 ‘가족’으로 받아들여 보편적인 가정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⁷⁵⁾

2) 청빈

청빈은 교회 문헌 안에서 ‘복음적 가난’이라고 표현되는 데, 복음적 가난은 비록 사제 생활의 목적이 아니지만,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길이다. 청빈의 정신은 “최고의 선이신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에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종속시키는 것이다. 하느님의 신비를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청빈을 이해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다. 물론 청빈은 물질적인 재물을 업신여기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느님과 그분의 계획을 위해서 진정한 내적인 자유에 따라서 기꺼이 물질적인 것을 기쁘게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⁷⁶⁾ 사제들은 “부요하면서도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2코린토 8,9),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특별히 자신에게 맡기신 사람들로 생각하며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기꺼이 포기하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여 단순하고도 엄격한 생활 방식으로 가난을 증거 할 수 있어야 한다.⁷⁷⁾ 복음적 가난은 사제들이 내적인 자유를 잘 보존하고 성장하게 만든다. 이런 내적 자유를 가지게 되면, 사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좀 더 서게 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그들과 좀 더 쉽게 연대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현상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되도록 일을 하게 된다.⁷⁸⁾ 청빈은 사제가 세상에 살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사회에서

74) 1코린토 7,32-34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을 걱정합니다.”

75) 사제 독신제의 역사와 의미에 대하여 다음 연구물을 참조. 박희중, 『성직자의 독신과 금욕』, 『가톨릭 신학』, 제16호(대구: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10), 153-188쪽, 특히 168-170쪽; 이정주, 『사제 독신제의 법제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현대적 의미』, 『神學展望』, 제169호(광주: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10), 86-114쪽.

76) 『현대의 복음 선교』, 30항.

77)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9항; 『교회법전』, 제282조.

78) 루카 4,18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소의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루카 4,18 참조) 신학생은 청빈이야말로 황금만능주의와 물질만능주의로 가득 찬 현대사회의 횡포를 당당히 거부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는 표지임을 배워야 한다.⁷⁹⁾

3) 순명

사제직을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성부의 뜻을 따르려 했듯이⁸⁰⁾ 항상 자기 뜻이 아닌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을 기꺼이 좇으려는 순명의 정신이다. 순명은 네 가지 차원을 지닌다. 첫째, 순명은 신앙적인 차원을 지닌다. 신학생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 위해 오셨으며(마르 10,45), 하느님께 순명하여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필립 2,6-11)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둘째, 순명은 사도적 차원을 지닌다. 즉, 사제가 되려는 이들은 자신을 받아들여 양성을 하고 서품을 준 교회와 주교와 사제단에 기꺼이 순명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셋째, 순명은 공동체적 차원을 지닌다. 사제 지원자들은 지나치게 개인적인 취향, 호감, 사상 등에서 자신의 관점을 고집하는 버릇을 버릴 뿐 아니라, 질투심, 시기심, 경쟁심을 대신 오히려 동료들이 더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순명은 사목적인 성격을 지닌다. 순명은 사람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대로 언제라도 기꺼이 자신을 내어 줄 ‘먹힐’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로 사는 것을 말한다. 물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의와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그들의 선의의 욕구와 갈망을 채워주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생활 태도를 지녀야 한다.⁸¹⁾

V. 나오는 말

오늘날 가톨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만만치 않다. 교회 밖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종교적 또는 문화적 다원주의적 사상의 도전이 있고, 지식혁명이라 할 수 있는 정보공학, 생명공학, 우주과학의 도전이 있다. 그러나 사실 교회를 향한 진정한 도전은 교회 내부에서, 그리고 더 깊은 차원에서 비롯한다. 교회는 세상적 도전과 세속적 가치와 행위에 대해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가치, 신념, 실천을 제시하는 대조(對照) 사회의 모습을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79) 『현대의 복음 선교』, 30항.

80) 요한 4,34; 5,30; 6,38 참조.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요한 4,34)

81) 『현대의 사제 양성』, 28항.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생명 지키기와 생명 살리기에 있어서도 창조신학과 생태신학에서 비롯한 명확한 실천규범을 제시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한반도와 세계의 정의와 평화 실현에 대해서 명확한 하느님 나라의 비전을 전달하지 못할 때도 많다. 오늘날 무엇이 그리스도께서 진정 바라셨던 대조적 공동체이며, 공동체적 삶이 구체적으로 교회 내부에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 구현되는지 제시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는 위와 같은 내외적 도전에 대해 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교회의 전통에서 볼 때, 교회가 초지일관되게 내놓았던 해답은 ‘사제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훌륭하고 거룩한 사제를 양성하는 일은 교회가 외부적으로는 세상의 강력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답하고, 내부적으로는 교회적 제도를 공고히 구축하며, 충실하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이다.

교회의 내일은 오늘의 사제 양성의 성패에 거의 전적으로 달려있다.⁸²⁾ 사제 지원자들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양성하는 일은 교회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신학교의 사제 양성, 특별히 영적 양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사제직의 시작과 완성이 사제의 영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회 구성원들은 영성적인 사제들을 간절히 원한다. 교회문헌을 고찰할 때, 영성적인 사제란 거룩한 사제, 이타적(利他的)인 사제, 기도하는 사제, 선교하는 사제, 그리스도를 닮은 사제, 그리고 교회에 충실한 사제를 말한다.⁸³⁾ 신자들이 바라는 사제상을 정리해 보면, 영성과 기도생활에 충실한 사제, 겸손하고 자상한 사제, 헌신적이고 봉사하는 사제, 폭넓은 지식과 안목을 지닌 사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사제, 시대의 징표를 읽는 사제 등이다.⁸⁴⁾ 마치 완전한 인간을 원하는 듯 과도하게 보이는 이러한 이상적인 사제 이미지들은 사제에 대한 교회 구성원들의 무한한 기대와 염원이 담겨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완전한’ 사제의 양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

다소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완전한’ 사제를 염원한다. 완전함이란 단어에 거부감이 들지도 모르지만, 사실 완전함은 사제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명령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48). 좋은 삶은 사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오는 완전함에 가장 먼저 도달해야 하는 존재이다. 완전한 사제란 단순히 ‘좋은’ 사제나 ‘훌륭한’ 사제가 아니다. 자신을 철두철미 그리스도께 맡기고,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에서 그분을 닮

82) 『신학교 영성 교육 중 매우 절박한 문제들에 관한 회람』, 1항.

83) 박영근, 『2000년대 한국의 바람직한 사제상(司祭像)』, 『이성과 신앙』, 8(수원가톨릭대학교, 1994), 150쪽 이하.

84) 같은 글, 142-149쪽; 박영대, 『신자들이 바라는 사목자상』, 『사목』 제254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0, 3), 37쪽 이하; 성염, 『비성직자가 바라보는 사제상』, 『가톨릭 신학과 사상』 11(가톨릭신학과사상학회, 1994), 88쪽 이하.

아 하느님과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줄 수 있는 사제를 말한다.⁸⁵⁾ “사제 양성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사인 사제, 즉 언제나 그리스도를 닮은 사제를 양성하는 것입니다.”⁸⁶⁾

‘완전한 사제’ 그리스도를 닮은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사제 지원자들의 인격 양성, 지적 양성, 사목적 양성, 그리고 영적 양성에 대해 교회문헌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네 양성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는 영적 양성에 대해 이론적인 고찰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상술하였다.

영적 양성을 통한 미래 사제들의 영성 계발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측면은 영성의 내적 측면으로서 그리스도를 찾고 일치하는 양성 과정이다. 이 양성 과정 중에 신학생들은 영성강화와 영성지도,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와 말씀 묵상, 성체 성사, 고해성사, 성무일도를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기도, 침묵, 피정, 영신수련 등을 충실하게 실천하도록 권고받고 있다. 특별히 1학년 신학생을 위한 영성의 해와 대학원 1년생을 위한 영성심화의 해는 자신의 인간적 성숙과 영적 성장, 그리고 성소 식별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

정결, 청빈, 순명이라는 복음삼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저한 실천 역시 사제 양성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먼저 정결은 하느님과 사람에게 전적으로 봉사하고 아낌없이 내어주고, 나아가 새로운 영적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결심이며, 청빈은 하느님이 모든 것이기에 그분 이외에 다른 물질적인 것, 소유하려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는 의지적 표현이며, 순명은 자기 성소의 시작이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승복하겠다는 태도이다.

사제 양성의 핵심인 영적 양성이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철두철미 따르는 영혼의 내적 여정과 정결과 청빈과 순명으로 무장한 확고한 신앙적 결단을 포함하는 영성 계발의 과정인 것이다.

85) 완전한 사제란 개념은 19세기 중후반 프랑스 리옹의 가톨릭 사제였고, 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사제 양성’이란 목표로 프라도사제회(Association des Pretres du Prado)를 창설했던 앙트완느 슈브리에(Antoine Chevrier, 1826-1879)의 사상에서 가져온 것이다. “참다운 제자는 가족과 세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며, 이 세상의 재물을 버려야 한다. 그 다음 자기의 모든 십자가를 지고, 복음 모든 덕행을 실천함으로써, 그분을 따라야 한다.” 앙트완느 슈브리에, 『참다운 제자』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4), 156쪽.

86) 『현대의 사제 양성』, 5항.

참고문헌

- 곽진상. 「신학교의 사제양성 시스템」. 『경향잡지』 (April, 2013). 22-25쪽.
-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독신 생활 양성 지침」(1974년). 『사제양성-신학생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 _____. 「신학교 영성 교육 중 매우 절박한 문제들에 관한 회람」(1980년 1월 16일). 『사제 양성-신학생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 _____.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Tria jam lustra, 1985년 3월 19일).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0.
- _____. 「신학생 선발과 양성에서 심리학 활용 지침」(Guidelines for the Use of Psychology in the Admission and Formation of Candidates for the Priesthood, 2008년 6월 29일).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e-book]
- _____. 「사제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 지침」(Pastoral Guidelines for Fostering Vocation to Priestly Ministry, 2013년 3월 25일).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 [e-book]
- 교황청 성직자성. 「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Directorio per il ministero e la vita dei presbiteri, 1994년 1월 31일)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e-book]
-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대신학교 교육 지침」(La Congregazione, 1987년 4월 25일). 『사제양성-신학생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 _____. 「교구 사제 사목 지침」(Pastoral guide for diocesan priests in churches dependant on the Congregation for the Evangelisation of People, 1989년 10월 1일). 『사제양성-신학생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 김기화. 「서울대교구 대신학교 신학원 영적 양성」. 『司牧研究』. 제10호. 서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2002.
- 김영교. 「대신학교에서의 영성교육」. 『복음과 문화』. 제9호. 수원: 수원가톨릭대학교. 1998.
- 노용필. 『예수성심신학교의 사제 양성 교육』. 『인간연구』. 제5호. 서울: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3, 155-181쪽
- _____. 『성신대학의 사제 양성 교육』. 『인간연구』. 제7호. 서울: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4, 128-154쪽.
- 바오로 6세. 『현대의 복음 선교』(Evangeli Nuntiandi, 1975년 12월 8일).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7.
- 박영근. 「2000년대 한국의 바람직한 사제상(司祭像)」 『이성과 신앙』, 제8호. 수원가톨릭대학교. 1994, 127-162쪽.
- 박영대. 「신자들이 바라는 사목자상」. 『사목』, 제254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0, 34-42쪽.
- 박일. 「대신학교에서의 사제 양성의 쇄신」. 『司牧研究』. 제10호. 서울: 가톨릭사목연구소. 2002.
- 박희중. 「성직자의 독신과 금욕」. 『가톨릭신학』. 제16호. 대구: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10.
- 브루노 마초카토. 「양성 공동체로서 대신학교」. 한영만 옮김. 『가톨릭 신학과 사상』. 제42

- 호. 서울: 신학과사상학회. 2002.
- 서울대신학교. 『생활대규』. 서울: 가톨릭대학교. 1997
- 성염. 「비성직자가 바라보는 사제상」, 『가톨릭 신학과 사상』 제11호. 가톨릭신학과사상학회. 1994, 88-103쪽.
- 앙트완느 슈브리에. 『참다운 제자』. 한국프라도사제회 역.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4.
- 요한 바오로 2세. 『교회법전』(라틴어-한국어 대역판). 한국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역.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0.
- _____.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1992년 3월 25일).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2.
- 유희석. 「오늘날 사제의 정체성」. 『가톨릭신학』 제14호. 대구: 한국가톨릭신학회. 2009.
- 이정주. 「사제 독신제의 법제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현대적 의미」. 『神學展望』. 제169호. 광주: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10.
- 이춘택. 「사제 양성 안에서 드러나는 성소식별의 필요성」. 『누리와 말씀』 32호. 인천가톨릭대학교. 2012.
- 이학율. 「신학생들의 영성생활과 기도양성-교회문헌을 중심으로」. 『신앙과 삶』. 제9호. 부산: 부산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4.
-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Optatam totius, 1965년 10월 28일).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3.
- _____.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Presbyterorum Ordinis, 1965년 12월 7일).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3.
- _____.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Christus Dominus, 1965년 10월 28일).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3.
- 최준규. 「한국 가톨릭 사제 양성: 원리와 실제」. 『가톨릭 신학과 사상』. 제53호. 서울: 신학과사상학회. 2005, 75-137쪽.
- _____. 「사제 평생교육의 의미와 발전 방향」. 『가톨릭 신학과 사상』. 제57호. 서울: 신학과사상학회. 2006, 186-219쪽.
- 한공렬. 「공의회 정신에 의한 사제상(司祭像) - 교회의 자아(自我)비판」. 『司牧』 제1호.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7. 83-94쪽.
-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시간전례」. 『한국 가톨릭 대사전』 제8권. 왜관: 분도출판사. 2006.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톨릭 교회 교리서』.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 사제 양성 지침』(2001년 7월 10일).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제 양성: 신학생 양성에 관한 교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사목회의위원회. 「성직자」. 『사목 회의 의안 I』. 서울: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사목회의위원회. 1984.
- 허성준. 「수도승 전통 안에서의 Lectio Divina」.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원고접수일: 2013년 11월 12일 심사일: 2013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10일

연구자소개: 최준규

- ① 전공: 교육행정학 / 소속: 가톨릭대학교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영성교육, 고등교육
 - ③ 주요논문: 가톨릭학교 교사의 영성, 가톨릭 대안교육, 가톨릭계 학교의 종교교육,
예수의 교육원리와 현대적 의미
 - ④ E-mail: runnerchoi@catholic.ac.kr
-

Abstract

The Spiritual Development in the Priestly Formation of the Catholic Church

Choi, JunGui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thesis was to investigate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practices for the spiritual formation which is one of various dimensions of the official process of the priestly formation in the Catholic Church.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Church's official documents and other studies relevant to this subject were reviewed.

The priestly formation is important task to accomplish the evangelization which is foremost mission of the Church. It includes such dimensions as 'selection' of the candidates, 'seminary' for the best place for the formation, and the 'key persons' for the formation. Also, there are four areas of the priestly formation, such as the human, the intellectual, the spiritual, and the pastoral. For the priestly formation, the human formation can be called as its foundation; the intellectual formation as its fertilizer; the pastoral formation as its aim; and the spiritual formation as its completion.

The goal of the spiritual formation is to unify each candidate for the priesthood with Christ in propounded level. Two methodologies for the spiritual formation with which the seminaries have utilized in Korea are 'Search for Christ' and 'Three Virtues of the Gospel.' The programs of the 'Search for Christ' includes spiritual discourse, spiritual guidance, *lectio divina*, meditation of the Word, Eucharist, Confession, *Horarium*, personal prayer, silence, retreat, spiritual exercise, the Year of Spirituality, the Year of Spiritual Intensity. Cultivating such virtues as celibacy, poverty, and obedience are main foci for the programs of the Virtue of the Gospel.

Key words: Priestly formation, spiritual formation, spiritual guidance, spirituality development, Church documents, seminary, seminarians, candidates for priesthood, celibacy, poverty, obedience